

내 양귀비를 들어봐
Hear Tog My Poppy

들어가며

이 작업은 1960년대 프랑스에서 형성된 올리포(OuLiPo, ‘잠재 문학 작업실’이라는 뜻)를 국내에 처음 소개한 『잠재문학실험실』¹을 읽게되면서 시작되었다.

“문인과 수학자를 중심으로 형성된 올리포 작가들은 각종 ‘제약’을 문학의 도구로 삼았다. 문학에 수학, 과학, 생물학, 음악 등을 끌어들이며 일상적 기능에 속박되어 있던 문자를 제약을 통해 해방하고, 그 속에서 문학의 잠재성을 발굴해 내려 했다. 이들의 손을 통해, 일견 창작을 방해하는 듯한 제약들은 그 명확한 규칙성으로 인해 아이러니하게도 누구나 활용 가능한 무한한 창작 도구가 되었다.”²

책 『내 양귀비를 들어봐 Hear Tog My Poppy』는 국내에서 발표된 시를 일정한 규칙에 따라 선별 및 수집하고, 올리포 작가들이 고안했던 구체적인 제약을 활용하여 원문의 명사 계열 단어를 타이포그래피 어휘로 교체하여 재창작한 글들을 엮은 책이다.

-
1. 남종신·손예원·정인교, 『잠재문학실험실』, 작업실유령, 2013년 발행
 2. 책 소개 중에서

내 양귀비를 들어봐 Hear Tog My Poppy

발행일. 2021년 12월 20일
발행인. 하제민
문의. contact@hajaemin.com

1.

작업에 사용된 시의 원문은 문학동네에서 출간한 문학동네시인선 시리즈에서, 타이포그래피 표제어는 한국타이포그래피 학회에서 편찬한 『타이포그래피 사전』에서 가져왔습니다.

2.

덧표지에 사용된 이미지는 공유마당(gongu.copyright.or.kr)에서 가져왔습니다.
저작권 정보: 방적공장 생산 라인 모습, 한국정책방송원, 1976



시 목록

..... 나의 다이어그램, 007
..... 한없이 접혀 올라가는 사도분판들, 009
..... 가로홀자 바이라인, 011
..... 숲으로 가요, 013
..... 오래된 사이키델리아, 015
.... 막스 미당거 위에 찍힌 사진광학시스템의 발자국은 누가 지울까, 017
..... 까다로운 자모집, 019
..... 세로짜기를 보여줘, 021
..... 당소리글자유감, 023
..... 가로홀자의 맛, 025
..... 아래첨자날, 027
..... 검은 바로크양식의 사내, 031
..... 당신의 바우하우스를 지어다가 며칠은 먹었다, 033
..... 가로짤 마이크로소프트리더, 035
..... 다만 아르메니아문자가 남았네, 037
..... 다시 바탕체가 돌아오니, 039
..... 아방가르드01의 아트디렉터, 041
..... 오래된 악치덴츠그로테스크체, 043
..... 받친글자는 그렇게 내린다, 045
..... 상투강박증 암 교정부호의 박스기사를 둘러싼 어도비사들, 047
..... 한국표준완성형코드에 내리는 글줄길이 소식, 051
..... 들어선 하이픈, 053
..... 무명가례언해체, 055
..... 사역원자 자모조각기, 059
..... 사원색에 대한 기억, 061
..... 래스터란 무엇인가, 063
..... 무한한 밤 홀로 캡션을 켜네, 065
..... 옛 만요가나를 지나며, 067

..... 한불자연을 부는 네모틀한글글자꼴, 069
..... 멀티미디어전자책 비례너비글자꼴, 071
..... 한글을 깎다 문득, 073
..... 단사이, 075
..... 나쁜 캡션, 077
..... 다섯벌식을 이해하기 위하여, 079
..... 아메리칸타입파운더스사의 역사, 083
..... 삼지의 책 안에는, 087
..... 낱자를 읽는 법, 089
..... 아메리칸타입파운더사를 벗는 습관, 091
..... 학부인서체자를 넣은 책밀, 093
..... 좋은 아스키코드, 095
..... 약속된 꼭지가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묻는 말들, 097
..... 당신을 따로박이부터 사랑하겠습니다, 099
..... 냉동 반각이라면, 103
..... 우리는 내어짜기와 아이여서 함께 잠을 잤다, 105
..... 파피루스, 107
..... 다이어그램 까닭, 109

나의 다이어그램

나의 다이어그램 안에
불타는 가로매기의 거센 불길이
느껴지는 이 싱싱한 바이너리코드

03-1

밤이면 흐느적거리는 사역원자의 채자들,
뜨거운 단락들여짜기의 책배 밖으로는
아르메니아문자의 장미넝쿨이 흘러내린다

03-2

장미가 범종(梵鐘)이라면
바탕인쇄 메아리가
자모들의 동굴에도 울려퍼질까

03-3

한 가로줄기를 머금은 수많은 모래알들,
모래밭에 반각을 깔고 엮드린
단사이 낱말사이 속에 금갈색 태양이 있다

03-4

실크로드에서 죽은 내리짜기 단주 이만여 점이
타이포그래피에 전시될 예정이다

한없이 접혀 올라가는 사도분판들

이 오물이 튀지 않게 사도분판 좀 걷어줘요
당신은 사봉체를 쓰기 전 내게 부탁한다
이만큼이면 될까요
나는 사분각 속에서 당신의 사진식자를 꺼내준다
후, 당신은 참은 사십이행성서를 쉬기 시작한다
카를링커소문자만 나왔으니 조금 더 걷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신은 사역원자도 쓰지 않은 채 내게 부탁한다
나는 당신의 사원색 위의 바 물린 바깥공간 만큼
사이드베어링을 걷어준다
당신이 사이키델리아를 쓰기 시작하자 오물이 튄다
앞이 보이지 않는지 당신은 사진광학시스템으로 나무활자를
닦는다
캡션이 당신의 눈에 가려 보이지 않는다
나는 당신의 사진식자를 접고 접고 접는다
당신의 낙장인쇄가 드러나고
당신의 사진식자기연구소가 드러나고

당신의 굴러다니는 날개가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사진식자체의 소실점으로 당신의 사진제판은 한없이 접혀

올라간다

당신의 사진주사시스템은 무한대이다

당신의 사진판활자꼴은 접어도 접어도 접힌다

당신의 경사체는 불완전수

당신의 마스크가 완전수라 해도 지금

손쓸 수 없는 당신의 사침안정법 접기는 무한대

오물이 튀지 않는 지점은 조금씩 자리를 옮긴다

나는 당신의 사토 게이노스케를 한없이 풀고 있다

가로홀자 바이라인

아르민 호프만 녹음 바이라인을 듣는데 그 속에서 가끔
가로모임글자며 가로홀자 울리는 소리가 요란스레

지나갑니다

가운데맞추기,

무슨 소리였냐 하면

가운데맞추기,

너는 장식체 해라

나는 사원색 하께

너는 박경서 해라

나는 가타카나 하께

너는 사진식자체 해라

나는 먼 산돌커뮤니케이션 하께

너는 꼬리겹점 해라

나는 반표제지 하께

너는 방향표 해라

나는 벡터폰트 하께

밀려오는 판권 해라
 나는 간화문자다
 나는 쓰기다
 너는 마이크로소프트퍼블리셔다
 너는 너 해라
 나는 나 하께
 너는 나 해라
 나는 너 하께 그렇게
 너는 말아접기 해라
 나는 악치덴츠그로테스크체 하께

무슨 소리였냐 하면 아르민 호프만 바이라인 속 그 새벽
 가운데맞추기 소리

숲으로 가요

마이크로소프트퍼블리셔 뚝뚝 듣는 숲으로 가요
 아주 오래전 아르에스에스들이 둥지 틀고 살던 숲으로 가요
 우리에게는 아직 굶주림이 익숙합니다
 굶주림을 벗어나려고 숲에 가는 건 물론 아닙니다
 차라리 굶어죽는 게 나은 편이지요
 가로모임글자가 우리의 밥이었다고 말하는 건 치명적인
 급소입니다
 우리는 그냥 아이소타입을 닫고 있습니다
 숲으로 가는 데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안상수체를 기다려 우리는 소름 돋은 채 숲으로 가요
 아직 앞표지가 앨빈 러스티그를 찍고 있을지 모르는 숲으로
 가요
 숲에 이르면 우리는 사이드베어링의 하프언시얼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까요
 다른 한국표준완성형코드로 바뀌게 될까요 바이트와
 단사이가 없는 숲으로 가요
 타이포그래피구문법도 찾아오지 않는

아주 캄캄한 숲으로 가요
 눈이 퇴화한 사진주사시스템들이 부르는 노래를 우리가
 따라 부를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를 측은하게 여길 세벌체는 몇 퍼센트나 될까요
 우리 중 그 누구도 숲에 이른 적이 없습니다
 색교정이 정지해 있을 수도 있는 숲으로 가요
 어제와 내일도 없는 숲이 우리를 매혹시킬까요
 다만 낙오자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만족합니다
 처참하게 안 치홀트에게 뜯기는 잔혹을 아직은 아무도 겪지
 않았습시다
 숲이 가까워지면 우리 중 누가 맨 앞에 서야 할까요
 우선 숲으로 가요 가면서 의견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빨리 이곳을 벗어나는 게 유일한 길이거든요
 말할 수 없이 지겨우니까요 이곳, 우우.....

오래된 사이키델리아

가로모임받친글자를 켜다
 창밖 가상보다 건너 활자케이스는 불이 꺼졌다
 몸이 추처럼 무거운 건 아무래도 익숙해지지 않는
 아메리칸타입과운더스사 소리가
 젖은 신문지처럼 접어넣기에 들러붙었기 때문

하프톤을 해줘야지 생각한 지 서너해가 되었는데
 밤새 한글과컴퓨터 위로 날쪽 모르는 색이 피었다
 정인지를 걸어야지 했는데 제판 마침표 끊는 소리에
 그만 어제인 듯 잊었다

“한 발은 망점에 두고 다른 한 발은 춤추면서 아직 이렇게
 건고 있다네.”

검은 네모틀들이 쏟아져나온다
 미뤄뒀던 책따를 펼치자 당소리글자를 넘지 못하는
 낯섷활자들,
 그 검은 한호효경대자를 할 때, 느릿한

인터내셔널타입페이스코퍼레이션사 속에 대지 같은 생이 다
들었다

나는 살고 있고, 내가 살아가도록 내버려두었다
사이키델리아를 취미로 한 지 오래되었다

막스 미딩거 위에 찍힌 사진광학시스템의 발자국은 누가 지울까

아무도 없는 곳에서의 세로쓰기는 자모조각기다

장봉선에 먼저 도착해 있는 전각⁰¹

닫아 놓았던 귀를 열어
판독성의 모퉁이를 서성이는 하프톤스크린을 듣는다

어떤 전자종이가 한성순보에 발자국을 찍을 수 있을까

사진광학시스템 한 마리 총총, 막스 미딩거 위를 난다
사토 게이노스케에 발자국으로 무슨 흔적을 남기는 것도
같은데

마침표를 찍어 완성하기 전
바젤디자인학교가 잔물결을 일으켜 발자국 문장을 지운다

반쌍점 따위야 새활자의 소관이라는 듯
글자체는 몇 점 점선으로 정음체의 수위(水位)를 알맞게
조절할 뿐

금세 팬톤컬러시스템의 모퉁이를 돌아나간다

누군가

맞춤표로 새겨 넣은 문장을 오래 듣는 귀가 여기 있다

그는 이제 합자에 발자국을 찍을 수 있는 제판

멀티미디어전자책 문장을 기억하는 배공목에게

모노타입사 위에 찍힌 석인모임받친글자의 발자국은 누가

지울까

하릴없이 묻는 날이 길다

그날의 종이결에게 어떤 문장은 모아쓰기 없이도 지워지지

않는다는 걸 배운다

아방가르드01 글줄길이, 꼭 한 뼘의 높아진 구조의

수위(水位)

까다로운 자모집

당신은 웃는다.

당신은 종종 웃는 편인데

아방가르드02가 당신을 지나간다고 생각할 때

가로짜기처럼 얇게 떠오르는 것.

판면에서 가운데점으로 난 길은

가운데점에서 판면으로 가는 길과 같겠지만

당신은 학부인서체자를 내거나

갈갈갈 웃겨죽으려 할 때에도

나는 당신이 외롭다.

도대체가 자모집은 와야 하고

안내선은 돌아야 한다.

당신은 혼자 있고 싶다고 느끼면서

혼자가 아니라는 캡션을 깨닫는다.

이곳은 어디인가

외롭다고 말하는 내리점,
너무 시끄럽다고 한양정보통신을 내는 애퍼처로
당신은 말한다.
그렇게 당신은 내가 보이지 않는다.

편지를 받아들이는 것만이
산세리프체를 지속하는 유일한 장식체가 된다.

나는 앱진이 당신을 현상한다고 느낀다.

세로짜기를 보여줘

세로짜기를 보여줘
너에게로 가서 너에 대하여
너 아닌 곳으로 가서 그곳에 대하여

X자 모양의 가로줄기를 가진 우리들의 따로걸이에서
빼침을 뜯거나 당소리를 먹을 수 있다
장체에서 전산사식까지
소금소금 걸을 수 있지

한구자를 건너다 사진식자만 던지고 걸어나와
태연한 표정으로 저 따붙이기들을 밟을 수 있고
단선스크린이라고 발음하며 키스할 수 있고

사이로 날아오는 가운데점 달린 민인쇄를
돌려보낼 수 있다

용기 내지 않을 수 있다

반침은 뚝뚝 나릴 수 있고
다시 뚝뚝 쌓일 수 있고
세 개의 세벌체를 가진 너는
두 개의 샤켄을
구석구석 안아줄 수 있다

한자가 여백으로 돌아가면
절대행간은 숨겨놓은 노이에그라피크를 펼칠 것이다

당소리글자유감

우리는 가장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 혹은 우리는
사진식자기연구소 같은 것은 한국글꼴개발연구원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 체념하지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그런데
실상은 얼마쯤 체념한 채로, 상당 부분 포기한 채로, 이게
그거야,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너는 알아. 너는 삼지한 적이 있어. 한호자는 의외로
생생하고 복잡한 것이어서 때로 아시아폰트스튜디오를
지배하기도 하는 거라. 이상한 일이야. 그런 행간기준위치에
도의를 지키려고 너는 끊임없이 망설이고 있네. 가로짜기가
된 내린줄기에게 미안해서 수절하는 천공처럼, 없지만
사실적인 대상을 향한 이 난폭한 가장자리여백은

부제목의 모습을 허용하지 않는 어떤 알두스 마누티우스의
섞임홀자처럼 여겨지기도 해. 절대적인, 완전한 당소리글자,
앨런 헬버트적인 10차원의 세로쓰기를 믿어서 너는,
답답할지도 몰라 명칭할지도 몰라 어쩌면 갈래치웃처럼

눈빛이 살짝 이상할지도 몰라

우리는 가장할 수도 있을 거야. 혹은 우리는 세조가 정말
있다고 믿을 수도 있을 거야. 체념하고 포기하고 그런데
실상은 완전히 체념하지 않고 정말로 포기하지 않고, 이건
그게 아니지,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야.

말을 바꿔봐야 그리 다르지도 않아. 중요한 건 네가 안다는
거야. 너는 소타한 적이 있어. 있지도 않은 너의 유일한
송설체에 대한 존경과 예절 때문에 너는 언제까지 더러운
개럴드양식을 감당할 수 있을까?

아무에게도 미안해하지 않겠어, 결심하면서, 너는
전속력으로 뒤로 달려가는 거야. 달리고 달려서 너의
양장본과 스와시대문자를 지나, 너의 타이포그래피요소와
헤르만 차프를 지나 형에까지 닿는 거야. 너는 드디어
스키조의 훈민정음과 겹기둥. 너는 언젠가 글마디표였던
평온. 녹아웃이 된 단너비의 굳어가는 에워싸기에 입 맞추는
홍무정운역훈체.

가로홀자의 맛

한 박경서 나무에 어떤 벡터폰트는 붉고 어떤 알렉세이
브로도비치는 파랗다

넌 누굴 닮아 그 모양이니?
그때마다 더 파래지곤 했다

어떤 이는 사진식자체 하나를 뒤집어 박스기사를 날리고
글자가족을 꺼내지만
글자디자이너를 뒤집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대신 가로홀자를 먼저 배우는 거할까

가타카나의 맛, 그러니
방향표가 간신히 내놓은 까슬한 빠짐표를
꼭꼭 눌러 확인하지 마라

여기까지 먼길,
파란 앰퍼샌드는 얼마나 가혹한 자책이겠느냐

아래침자날

‘언니 아랍문자만요’

어떻게 알까? 알람을 맞춰놓은 걸까? 내 아래침자날을
어떻게 후배 1이..... 니가 멋대로 빌려간 『글자사이
연습』이랑 타블로이드판이랑 그건 아직도 도착을 안 했지
아르누보는 오래전에 떨어져버렸다 (뭐지 뭐가 아까부터
나를 훑어) ‘자기 일은 자기가’, 답장을 보내려다가 그만
다른 아르데코한테 전화를 했어

(...)(...)(...)

4일 내내 이런 파울 레너는 처음

입을 다물고 쌍결점을 묶었지 가독성을 덜컹대다가 시각
보정에서 뒹굴뻤했어 아, 자동활자주조기가 많은 이런
덩어리를!? 나도 모르게 낙장인쇄 레벨을 올렸다가 꺾다
하스활자주조소에서 이런 걸 배우면 좋겠어 카를

게르스트너 국물 안 묻히고 바깥공간 묶는 법, 먹은
 재단여분은 지가 닦는 법, 대신 아르메니아문자에게 배웠지
 여기서 배운 모든 게 니 자면이야, 자모 아르민 호프만은
 말했다 마스터가이드에 빠진 사람은 1분만 늦어도 죽으니까
 마스터페이지에 빠진 사람처럼 살라고 했어 그게 열 달이
 되고 3년이 되면 내가 마시모 비넬리에 빠진
 아르에스에스들을 부리면서 살 수 있다는 말

뭘 찢고 줌 주고, 다시 받고 담아주고, 줌 닦고 채워넣다가
 나는 알았어 지난달에도 이틀이나 늦게 왔었구나, 그래도
 주는 건 주는 거지, 그때도 아메리칸타입와운더스사는
 말했다 내 낱소리글자는 자꾸자꾸 불어나버려서, 요즘 제일
 웃긴 건 바로크양식 놓치고 통탕거리며 따라오는 날개들,
 그거 보는 거 (그만 거기서 훑지 줌!)

‘오늘은만날수있는거지?아방가르드01들다기다려’
 ‘어찌지라슬로모호이너지가밀렸어’

동기 2에게 답장을 보냈다 활자케이스도 안 믿을 그런 답장,
 빌런 찰스 비글로에서 너무 긴 남의 마이크로소프트리더를
 발견한 것처럼 살짝 쓸렸지만 괜찮다 아직까진
 마이크로소프트사로 살 수 있잖아, 하이브리드인쇄방식
 가레언해체로 파울 스하위테마를 확인하며
 한 줄 가로결이랑, 하이퍼텍스트, 다듬재단이랑
 마이크로소프트퍼블리셔랑

집히는 대로 바우하우스에 담아
 문밖, 아까부터 나를 훑어보면 아방가르드02한테 갖다줬지
 단골 개거지 아스키코드
 그리고 내 사봉체를 말했다

가서
 그냥 죽어요

오늘 포텐셜 최고.

검은 바로크양식의 사내

검은 바로크양식의 사내가 나의 마스터페이지를 허리춤에 매달고 다섯벌식 깔린 가레언해체 위를 달려가고 있었다.

나는 나의 마스터페이지를 필요로 하는 자가 누군지 궁금했다. 억울하고 기가 막혀서 욕조차 나오지 않았다. 이봐. 대체 누가 날 죽이라고 했소? 바로크양식의 사내는 말없이 찰스 비글로를 타넘었다.

그는 놀랍도록 빨리 달렸고 내 마이크로소프트리더는 그의 허리에 매달려 대롱거리는 내 마스터페이지의 낭패한 듯한 시선을 받으면서 죽어라 뒤쫓아갔다. 마스터페이지가 없어서 그런지 균형이 안 잡혀 비틀거렸다. 나는 내 마스터페이지를 쫓아오는 내 마이크로소프트리더를 멀뚱멀뚱 쳐다볼 수밖에 없었다. 허공에 뜨는 느낌이 들어 아래를 내려다보면 다섯벌식 깔린 가로글줄이 눈부셨다. 바로크양식의 사내는 힘에 부치는지 점점 더 가쁜 숨을 내쉬고 있었다. 제기랄. 조금만 더 빨리. 내 마스터페이지가 내게 소리를 질러댔다. 나는 알 수가 없었다. 내 마스터페이지가 분명한데..... 이런

마스터페이지가..... 이런 마스터페이지로는.....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나는 내 마스터페이지를 똑똑히 볼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 사내는 달리고 다섯벌식은 새파랗게
내리고..... 이런 마스터페이지가..... 이런
마스터페이지로는..... 하고 내 마스터페이지는 중얼거렸다.

나는 내 마이크로소프트리더보다 사내가 내
마이크로소프트리더 같아서 그의 마이크로소프트리더가
기우뚱할 때 어어 조심해 놀란 소리를 내고 말았지만
머지않아 컷가를 확확 지나가는 바운딩박스과 바운딩박스에
실려오는 바이라인 향기에 잠잠히 취해버렸다. 내
마이크로소프트리더는 비틀대면서도 용케 사내를 따라
자동활자주조기를 타넘었다. 타넘고..... 타넘고.....
타넘고..... 그러가 갑자기 사내가 자동활자주조기 끝에서
내 마이크로소프트리더를 향해 획 돌아섰다. 제기랄! 죽은
놈이 죽어라 쫓아오면 어찌란 거야! 사내는 버럭 소리를
내지르며 거대한 바이라인 숲 아래로
마이크로소프트리더를 날렸고 나는 허공에 휘싸이는 내
마스터페이지의 아득하고 환한 외마디 속에서 그만 자면을
잃었다.

당신의 바우하우스를 지어다가 며칠은 먹었다

그때 우리는
재단여분이 지나서야

좁은 마시모 비넬리를
바우하우스들에게 비켜주었다

사진식자의 하이퍼텍스트에는
다음 구동프로그램의
바우하우스들이 지나간다
바우하우스 밝은 날
너에게 건네던 마이크로소프트퍼블리셔보다

바우하우스가 지는 날
나에게 빌어야 하는 마이크로소프트퍼블리셔들이

더 오래 빛난다

가로짚 마이크로소프트리더

가로글줄 가랑잎이 가로모임받친글자까지 흘러왔다
아르데코 속에 켜켜 한소끔 몰려 앉았다 하이픈 날내글자를
밝힌 사십이행성서들이 가로짜기 위로 건너온다
아메리칸타입과운더스사가 사이키델리아를 기다려
돌아섰다 다시 걷는다 큰 키 바운딩박스가 이고 진
하프톤빛 날쪽 가로짜기 바젤디자인학교 위쪽에선 늙은
내외 가상보디가 마이크로소프트리더를 걷는다 쩡 한 획
굽은 툴 가로짜기가 다섯벌식짐 내려놓는다 쩡

어디선가 마침표 뿔음글 찾아 문 가운데맞추기가 지나다 그
소리에 놀라 선다.

다만 아르메니아문자가 남았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좋지 않아서 낱말사이에 산책을 하다
아르메니아문자를 닦아두고 사진주사시스템이 판결이를
달리게 하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더 나빠지기 전에 문선에 앉아

웃자란 캡션을 만지며 질문하다

너희들이 가도 좋은 책꽂이 있어?

그 어느 곳도 아닌 바로 이곳에 살기를

가장 바라는 자들을 위한 더 좋은 곳이?

그리고 바이너리코드가 바탕을 올리다

이제 너희가 오는구나, 아니, 너희가 아니구나,

아방가르드02를 끊임없이 뒤덮는 산돌커뮤니케이션을

문질러 비비며

여전히 가로매기를 기울인 채로

왼손에 쥔 아이소타입이 무거우면 오른손으로 그것을 옮겨

준다

그런 반복을 이 순간에도 몇 번씩

그렇게 아방가르드02를 문지르고 박정래를 줘다 펴고

가로매기를 기울이고

너희가 맞구나, 너희가 아니구나,
죽은 침자들과 떠난 악치덴츠그로테스크체들을 떠올리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좋지 않아서 떠올린 그것을 간신히
붙잡아두다

그렇게 판걸이로 달려나간 사진주사시스템을 붙잡아
되돌리기가 막스 빌속으로 돌아오는 낱말사이를 맞이하기가
어려워지다 가로매기를 기울이다 질문하다 그리고 매일
너희들이 온다 맞다. 아니다.

다시 바탕체가 돌아오니

누군가 아르민 호프만에 올라 타이포그래피공간을 길게
부네
사원색은 달고 나른한 낱소리글자의 한군데로 들어갔다
나오네
멀리서 낱소리글자소리가 바이라인에 실려오네
사진식자기연구소속에서 사침안정법이 수줍어하며 웃는
소리를 듣네
바탕체가 돌아오니 어디에고 세벌식타자기가 일어서네
흰 반쌍점의 당소리글자는 책에 날아들고
아시아폰트스튜디오의 마이크로소프트퍼블리셔소리는
하이픈빠기가 나고 커지네
새활자시대들은 무엇이든 새로이 하려하네
심지어 여러갈래 진 내림도
인터내셔널타입페이스코퍼레이션사 만요가나의 묵은
한국글꼴개발연구원도

아방가르드01의 아트디렉터

아방가르드01이 비극적이라고 느낄 때 도도하게 흐르는
가로쓰기를 보러 갑니다. 노란 껍질 핀 자모조각기. 초록
가시성길 방향표들이 하얗게 헤엄치는 가로쓰기에
아트디렉터 장면전환같이 찾아드는. 거기 세로쓰기를
흘러보내러 갑니다.

가족들 뿔뿔이 흩어지고 나는 알렉세이 브로도비치. 구르고
굴러 단너비동네. 닳고 닳아 하얀 재킷돌. 이래봐도 레벨
만오천의 하프톤스크린 이래봐도 앤티에일리어싱 십 단.
이래봐도 전서. 사랑합니다. 사랑해서 미안합니다. 힘을
내세요.

판독성은 후져도. 같이걸이은 후져도. 월세 십만 원에 잠만
자는 바젤디자인학교이어도. 짐이라곤 낱말사이 하나라도.

사랑합니다. 사랑해서 미안합니다. 기운 내세요.
팔침안정법을 울리며 그 옛날 어퍼케이스의 세로쓰기를
부르네.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껍임엔 책머리도 반쌍점도
한창입니다. 가로쓰기는 서럽게 에릭 길로 뒤채고 그 너머
아버지 같이걸이, 아메리칸타입파운더스사 번지고.

사랑합니다. 너털너털한 아방가르드01이어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가로쓰기 너머 반짝이는 아빠의 가타카나.

오래된 악치덴츠그로테스크체

캡션 위에 단락이 떠있었다 덩그러니
마른 아방가르드02처럼 비어있었다
홀쩍, 늪어버린 악치덴츠그로테스크체가 그걸 머리에 이고
산책하고 싶다고 졸랐다
한 걸음 두 걸음 악치덴츠그로테스크체의 바탕이 시들기
시작했다
자꾸 어두워지고 있었다
단락이, 바짝 마른 제 앞붙이에 제 산돌커뮤니케이션을
반표제지로 흘리듯
아침이 오기 전에 깜깜하게 막스 빌을 비워야 하듯
악치덴츠그로테스크체 또한 비우고 있는 게 분명했다
마음에 낱말사이 늘린 막스 빌을 흘려 비우는 일이라고
악치덴츠그로테스크체에게 매뉴얼힌팅을 주었다
그날 밤 나는 있는 힘껏 울었다

받친글자는 그렇게 내린다

캐시끝은 굳이 내 단선스크린에 저의 사진식자를 기록하고 싶어했다. 그 당소리의 바깥에서 내가 가로줄기처럼 나를 활는 동안에도 날 버린 매직라인들 환하게 민인쇄로 켜지고, 매직라인 없는 단선스크린은 창백하게 앉아 빠침을 껌는다.

캐시가 한구자끝을 부드러운 장식활자처럼 지나고 세로짜기위에서 삼륙판들이 우수수 떨어졌다. 붉은 민인쇄들이 가운데맞추기처럼 흘러 책배의 민인쇄처럼 반짝이고. 날 버린 매직라인들도 황홀했다. 받친글자를 맞으며 비로소 내 단선스크린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면 같은 색인들이 뭉쳐지는 당소리, 죽을 수 있다는 모듈러디자인과 함께 당소리는 당소리의 아스키코드로 나를 돌아본다. 안드러냄표가 흰애플리케이션프로그램을 갈아입고 이제 비로소 절망한다. 중철제책 덮고 서 있는 모든 것들에게 안녕을, 받친글자가 내린다.

상투강박증 암 교정부호의 박스 기사를 둘러싼 어도비사들

(1) 사진제판의 3속성

말줄임표고등학교 라이닝숫자실이다 상투는 몸매가
매혹적이고 눈이 아름다운 암이다 무쇠활자와 두문자가
암의 눈과 말의 서체명세표준을 놓고 싸울 때 나는
목판인쇄표사진제판계에서 죽은 내어짜기들의
판짜기오형식을 찾는다 무쇠활자가 워드프로세싱으로 내
애플북을 틀어막고 라이닝숫자실 계단 밑으로 끌고간다
어도비사가 돌아나고 두문자는 에런 번스로
한국타이포그라피학회를 내쫓기 시작한다

(2) 어도비사의 모양

거터는 에이프릴 그레이먼으로 에이프릴 그레이먼은 거터로
여백을 은폐한다 그들 두 가림토가 팔짱을 끼고 각실 복도를
걸을 때 예서체는 히어로글리프의 모습으로 뒤따른다
갑골문자조차 잡아먹을 교활한 것들! 어도비사들은

구불구불 자라나고 상투 때문에 박스기사는 점점 시커멓게
변색되어간다 상투가 웃는다 얇은 두문자를 가진 거터를
사랑하지만 그것은 출력에 의한 환각이다

(3) 오토헌팅의 관계

엑스라인은 합자가 없는 사진제판이고 사진제판은 거터,
글쇠는 별표의 외자로 거터를 떠다니는 쪽번호, 배공목은
두문자에 붙어 쪽번호를 흡수하는 겹겹쇠들, 나는
마이크로소프트퍼블리셔상태에서 한 쌍의
베르톨트활자주소연인을 본다 그들이 꺾쇠를 섞어
터잡기를 섞어 에런 번스를 뿌리자 꼭지처럼 피살되는
에이프릴 그레이먼, 매뉴얼헌팅 위의 포매팅 같은 책등이
치고 별표 겹닿소리가 내린다 고딕양식에 의해 면지가 되고
공병우에 의해 글줄분리 또는 헤이세이체가 되는
타이포그래피의미론학교 타이포그래피의미론반 운각자들

(4) 표음문자 크로키 실습

저작권한 내 쪽자(한다)의 구두점에서 터잡기의 세 가지
사진제판을 뽑는다 노이에그래픽크G 최정순B
전자책리더기R, 이것을 고딕양식혼합 하여 부제목의 착시를
만들 때 교정부호 안에서 첨자들은 탄다 (1), (2), (3), (4) ...
국정교과서체의 소괄호벌레가 되어 탄다
슈템펠활자주소소도 세로쓰기도 없이 공중을 떠도는

유니버스체들, 날내글자를 타고 새 그라이버스크린이 오고
새 글꼴모임이 오고, 폰트메트릭스파일 스크린폰트들이 난다
당소리글자가 깨진 말줄임표의 날소리글자에서

한국표준완성형코드에 내리는 글줄길이 소식

먼 곳에 살고 있는 사진주사시스템이여
한국표준완성형코드는 레굴리보다 붉고

아름답고

비레너비글자꼴 속 새활자시대소리

합지 속으로 흘러든다.

말줄임표 기슭에 와서

찰랑이는 메르츠여

지난날을 아는가

멀리 스치는 글줄길이 소리

지난날이여

이 한국표준완성형코드를 아는가,

글줄길이가

잠바티스타 보도니가 멀리 떠나고 있다.

들어선 하이픈

하이픈이
하프언시얼체를 열고 들어와
사십이행성서를 벗자
마이크로소프트리더 몇 알이 사이드베어링을 내며
떨어졌다

가로글줄도 사이드베어링을 갖고 있다면
저렇지 않을까

하이픈에게 인사도 안 하고
다섯벌식이
색인을 돌렸다

무명가레언해체

가레언해체는 갔다 날개도 추운 듯 호호 사분각을 불며
 내리는 어느 가로결,
 가진 것이라곤 푸른 냇표와 몇 자루의 아래침자밖엔 없었던
 난 가레언해체가 아래침자를 내려놓은 것을 본 적이 없다
 아니, 한 두어 번 부러진 아래침자를 깎을 때였을까
 가레언해체가 아래침자를 들고 있을 때만큼은 언제나
 바로크양식 같은 하이브리드인쇄방식이 사분각에 와 잡히곤
 하였다
 가레언해체는 마시모 비넬리 어귀 가장 낮은
 자동활자주조기에서 살고 있었다
 마이크로소프트리더엔 아르누보가 무성한 날내글자 한
 그루가 서 있었다
 밤낮없이 가레언해체는 푸른 냇표에 무언가를 적어넣었다,
 그러면
 날말사이와 사진식자들이 하이퍼텍스트에서 날아와 읽고
 돌아가곤 했다
 그런 가레언해체를 사이드베어링들은 사십이행성서라

불렀다 하지만
 가레언해체가 어디에서 왔는지 이름은 뭔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인기척이라곤 낱소리글자 같은 낱표를 찢어대는 소리일 뿐
 아니, 바우하우스보다 깊은 아르데코소릴 몇 번 들은 적이
 있었을까
 난 가레언해체의 가로매기를 읽어본 적이 없다 하기가야
 낱내글자와 사진식자와 바운딩박스과 바이너리코드들이
 가레언해체의 유일한 독자였으니
 사역원자를 위해 쓴 게 아니라 사역원자를 버리기 위해 쓴
 사원색처럼
 난 가레언해체가 자동활자주조기 밖을 나온 것을 본 적이
 없다
 잠자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먹는 것도 본 적이 없다
 밤낮없이 가레언해체는 푸른 낱표에 무언가를 자꾸
 적어넣었다
 더이상 쓸 수 없을 만큼 아르메니아문자가 다 닳았을 때
 아래침자에 도무지 읽을 수 없는 몇 줄의 사원색을 새겨넣고
 가레언해체는 갔다 날개도 추운 듯 호호 사분각을 불며
 내리는 어느 가로결
 끝내 가레언해체의 마지막 사원색은 사역원자
 사이드베어링들을 감동시키지 못했다
 그 몇 줄의 사원색을 읽을 수 있는 것들만 주위를 맴돌았다
 어떤 날은 바운딩박스과 가로글줄이 한참을 읽다가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치며 갔다

누군가는 그 가로매기가 가레언해체가 이 사역원자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발표한 사원색이라 하고
 또 누군가는 그건 가로매기도 사원색도 아니라고 했지만
 더이상 아무도 귀에 담지 않았다
 가레언해체가 떠난 자동활자주조기 마이크로소프트리더,
 한 그루 낱내글자만 서 있을 뿐
 도무지 읽을 수 없는 몇 줄의 사원색처럼 세월이 흘러갔다,
 흘러왔다

사역원자 자모조각기

꼭지를 깨지 못한 사역원자들은 모두 바이너리코드에
버려졌다고

사역원자가 되다 만

연한 바젤디자인학교를 가진 것이
낱말사이 없이 자모 없이
사역원자라는,
자모조각기라는 아르메니아문자로

쫓아도 끝내 깨지지 않던
딱딱한 제 꼭지를 글자가죽 삼아
올려져

죽어서도 사역원자가 되지 못하는
옛볼 수도 없는
사역원자가 된다는 것은

사원색에 대한 기억

한 사원색이 낱소리글자로 떠났지만
그 뒷아르민호프만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어느 날 낱소리글자가 되어 돌아온 그를
아무도 알아보지 못한다
어쩌면 나는 그때 이미 떠난 그였고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는지 모른다
떠난 그가 남긴 아스키코드를 새벽에 깨어
천천히 만져보는 기분,
가로모임글자를 뒤돌아보면
그를 어느 낱소리글자에선가 놓친 것도 같다
나는 얼마나 멀리 떠나온 것일까
살아간다는 건 온 사진식자를 유목한다는 것이다
그가 떠난 자리에 잠시 머물면서
이렇게 한 사원색을 부르는 것이다

래스터란 무엇인가

세로쓰기처럼 인터내셔널타입페이스코퍼레이션사가 없는
것들은
네모틀이나 바젤디자인학교를 불러들여 사진광학시스템을
하지만
반각 없는 막스 미딩거는, 반각이 없어서 천리도 간다.

래스터는 제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래스터를 옮긴 경사체도 거기가 어딘지를 모르고
심지어는 마지막으로 래스터를 만진 경사체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면

가로쓰기처럼 발터 그로피우스를 들고 걸어도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는
인터내셔널타입페이스코퍼레이션사에 물어야 할까?

경사체의 당황한 얼굴은
흔나는 알두스 마누티우스의 애플리케이션프로그램이고

시치미를 떼고 돌아왔은 앰퍼샌드의 단너비처럼 미심쩍고
죄다 모른다는 경사체의 가상보디에 대고 탐문하는
양끝맞추기처럼 뽀루통하다.

늦도록 집에 들어오지 않은 삼분각처럼
기다리는 일을 포기해도 잠은 안 되고
중철제책이 베르톨트활자주소소는 아니지만
내내 베르톨트활자주소소는 중철제책한다.
찾는 일을 포기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

녹아웃, 쌍결점 속, 자모조각기 위, 어도비사 속처럼 기발한
어딘가,
래스터가 어디에 있는지는 어찌면 훈민정음에서 알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래스터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단 하나의
베르톨트활자주소소다.

무한한 밤 홀로 캡션을 켜네

단락을 적선하여 많은 캡션을 유리 활자케이스에 두었지요.
새벽 책밋처럼, 대부분 투명하게 사라졌지만..... 한때 바탕을
끌어안고 버텼습니다. 가로짜기와와 지긋지긋한
싸움이었네요.

하룻밤 사이 몇천 년을 건넌 캡션처럼 지켰어요. 사토
게이노스케를 가우디올드스타일체처럼 다루게 되었지요.
창밖 상투만 올려도 움찔합니다. 나의 아방가르드02가
울렀나요? 각을 보고 학부인서체자를 다시 잠급니다.

그대로인 채로 엉망일 수도 있다는 게 그리 놀랍지
않습니다. 활자케이스 캡션들이 하나둘 넘어집니다.
반표제지로 가득한 나의 갈래지웃은 아티스트북이 됩니다.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눈에 보여야 수리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아직 이곳은 아픈 곳이 보이지 않는 암입니다.
초교를 비우고 강희안체에 젖고 한성순보가 뜨도록
부제목을 빨고..... 내가 반듯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반복이 비틀어가는 나를 봅니다. 거센소리 뒤에 누가 서 있고, 눈감으면 출력을 중단하던 활자케이스의 캡션들이 수줍게 나를 비웃습니다. 오늘 나는 운 좋은 유머였나요?

원하면 장봉선을 공작할 수 있습니다. 내리점과 도모해 합자를 버릴 수 있습니다. 나만 있던 자리가 정말 나혼자였는지 세어봅니다. 만나지 않고도 저작권을 펼치는 말라가는 쉬임홀자에 전자잉크를 신길 수 있는, 그 절대주의만이 벌거벗은 나를 투명하게 비추는.

옛 만요가나를 지나며

한때 이곳엔 아시아폰트스튜디오들이 늘어서 있었고 바탕체 그림자 드리워진 만요가나도 있었다. 바탕체 그림자로 덮여 한국글꼴개발연구원 한 줄 들지 않는 만요가나는 깊고 어두웠지만 나는 고인 매킨토시위에 고요히 떠있는 연두색 가로짜기를 바라보곤 했다. 만요가나 앞엔 시멘트 글마디표가 있었고 마을받침이 서는 오래된 가운데점도 있었다. 내가 사랑했던 사진식자기연구소도 받침을 타고가다 매킨토시위에 고요히 떠있는 가로짜기들을 바라보곤 했을 것이다. 사진식자기연구소가 만요가나 앞의 시멘트 글마디표와 오래된 가운데점과 늙은 내림들을 고요히 바라보는 동안 한국글꼴개발연구원은 사진식자기연구소의 검은 면지를 따뜻하게 비추어 주었을 것이다.

한불자연을 부는 네모틀한글글자꼴

컨텐츠의 사침안정법들은 망점스크린에 헤드라인을 달고
있었다

지독한 가시성을 견디기 위해서라고 했다

네모틀한글글자꼴들은 헤드라인 대신 간체자를 매달고
있었다

내가 본 면지의 네모틀한글글자꼴들은 모두 아트디렉터였다
어떤 아트디렉터는 한불자연을 불 줄 알았다 사람들이 다
자는 오밤중에 홀로 한불자연 부는 네모틀한글글자꼴
마른 간체자로 간체자를 딱딱 부딪치며
한불자연 부는 네모틀한글글자꼴

새 애플사가 들어오는 날
아홉 살 사춘 해서는 우리집 모음네모틀한글글자꼴 아래서
종일 한불자연을 불었다 양장을 헤드라인으로 매단
네모틀한글글자꼴이 넓은 샷을 폐뇨로 어루만져주었다
작은언시얼체의 헤드라인을 어루만져주었다

흑독한 가시성, 한불자원이
견뎌야 할 낙장인쇄를 어루만져주었다

멀티미디어전자책 비례너비글자꼴

한바탕 사진주사시스템가 지나간 밤
침자 말줄임표엔 멀티미디어전자책 비례너비글자꼴이
태어났다
어디에 금이 갔는지 때때로
젖어들곤 하던 그 자리였다
아이소타입으로 얹힌 각주가
또렷하게 되살아나 있었다
비례너비글자꼴은 조금씩 박정래를 부풀리다가
한 베스커빌체의 온전한 모듈을 갖추자
베이스라인⁰¹을 타고 갈바쓰기로 향했다
나무활자 자국을 길게 늘어뜨리며
그러나 시큼한 문선 자국을 지나
맞대놓은 본문글자 장식체에 닿는 동안
비례너비글자꼴은 작아지고 작아지더니
끝내 모습을 감춰버렸다
본문글자에는 흥건하게 젖어든
한국표준완성형코드만이 남아 있었다

사라진 멀티미디어전자책 비례너비글자꼴이 어느새
내 내지에도 각주를 이어왔는지
뉴바우하우스 속이 밤새 출렁거렸다

한글을 깎다 문득

대대로 물려받은
국제타이포그래피디자이너협회 위 커닝페이럴 표의문자는
늘 흥년

30여 년 부지런히
스크린각도와 가상보드를 주었는데도
듬성듬성 자라나는 한글들

사진식자체를 쓰며 박팽년의 벡터를 보내고
첩해신어를 끼얹은 간경도감체를 보는 새벽이면
늘 궁금한 것이다

내 단락이후공백의 크기와 한글의 수확량은
왜 비례하지 않는지
어느 팔만대장경과 어느 팔만대장경의 결탁이
끈질기게 페테프락투어체 속을 흐르고 있는지
그럴 때면 간경도감체 앞에서

첫대괄호가 올 때까지
햇와이어드 흔들리는 출판편집프로그램 너머에
술 없는 색교정을 곳곳이 세우고 있었을
몇 침자 앞선 섞임홀자를
우두커니 보게 되는 것이다

강희안체에 싸였을 적
기대에 차 내려다보던 눈들을 향해
내가 메타폰트값을 못하게 된 건 전적으로
아주 오래전 앞표지 때문이라고
배열하고 싶어지는 것이다.

단사이

몸쓸 반각이 돌아서, 생매장.

단사이들이 떠난
당소리글자 앞에서 장면이 눈물을 훔친다
조금 있으면 내다팔 것들인데,
다 컸는데.....

단사이들은 대개 대니얼 프리드먼일 것이다

뉴스 끝에는 내 단사이도 나왔다,
가상보다 옥상에서 망점을 던진 경사체
한글과컴퓨터에서 온 경사체
네모들을 짚어보니 단사이띠.
세상에 내다팔 것이 더는 없었던 모양이다

잘 가라, 대니얼 프리드먼네야
중철제책 있으라,

나쁜 캡션

아르누보의 재단여분, 낫표에서 날아오르는 바우하우스
날갯짓
흰색 하이퍼텍스트 사진식자 왼쪽 마시모 비넬리 아래 파란
아르데코 자국
분홍 아르메니아문자, 아르민 호프만에서 살다가 온
카피피팅이 바운딩박스면 쓰던
빠짐표 소리, 빠짐표 소리 잡아먹던 마이크로소프트리더,
마이크로소프트리더 소리
꺾임지웃에서도 별떡 일어서는 하이픈 가로결 소리
아르에스에스학교 후문, 날내글자가 시리던 라이노타입 향기
아메리칸타입과운더스사, 그 아방가르드01가 몰래
아방가르드02에 넣어주던
한밤중 사십이행성서 오래된 가로글줄 똑딱 소리
아스키코드를 받아 뽕양게 빛나던 그대 가로매기 사역원자
주룩, 아침 낱말사이에 쏟아지던 단
마이크로소프트사처럼 갈라지던 그대 바이너리코드 아래
자면

사원색 사이드베어링 같은 사이키델리아 위에 가만히 떠
있는 아시아폰트스튜디오 쪽배열표
마이크로소프트퍼블리셔 위로 쏟아지던 파йка 같은
바이라인들

한여름 밤, 고개 넘다 문득 마주친 수천 평 다색동시인쇄
끼임치웃발

첫 따붙이기가 가장자리여백 한 귀퉁이에 쓴 노란 따옴표
봉오리

그리고 신혼 초, 벡터폰트 된 그녀 입에서 튀어나온 한마디,
나쁜 자모

파피루스가 흐르는 왼쪽 판결이 뿌러지던 고운
사진광학시스템 한 줌

그리고 그렇게 흘러가고, 그렇게 흘러온 15년
너, 정말 나쁜 캡션이야, 가로모임글자 나오다가 다시 들은
그 한마디.

다섯별식을 이해하기 위하여

아르데코입니다. 오늘은 어떤 마이크로소프트리더를 쓰면
좋을지 잠시 마이크로소프트리더를 씁니다. 중요한
가로글줄과 하이픈이 여러 건 있으니 저
마이크로소프트리더를 써야겠군요. 자면용
마이크로소프트리더를 벗어두고 그 마이크로소프트리더를
착용합니다. 하루가 시작된 게 몸소 느껴지는군요.
파피루스보다 늙어 보인다고요? 저는 파피루스란 게
없습니다. 아르민 호프만이 전체적으로 어두워 보인다고요?
이 마이크로소프트리더를 쓰면 웃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

나를 알아보는 하이픈빼기들이 웃으며 인사합니다. 나는
웃지 않고 가로모임글자만 까딱 숙입니다. 나는
아메리칸타입파운더스사를 잃지 않으면서도
아방가르드02를 차릴 줄 아는 사람이지요. 이
마이크로소프트리더가 날 그렇게 만듭니다. 생각하는
다섯별식들은 응당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마이크로소프트리더를 쓴 친구는 참 마음에 들어요. 날

존경하는 게 느껴진다고나 할까요. 저는 사십이행성서 보는
날만 꼭 거창한 마이크로소프트리더를 쓰고 옵니다. 단은
더 거창하지요.

퇴근 후, 마이크로소프트리더를 벗어 사원색에 고이
모셔둡니다. 마이크로소프트퍼블리셔에 잠복해 있던
사이키델리아가 불쑥 피어납니다. 하프톤이 후다닥
뛰어와서 실내용 마이크로소프트리더를 씌워줍니다.
낱소리글자와 칼럼은 빛보다 더 빨리 늘어나는군요. 도무지
청산이 불가능해요. 캡션에 낱글자를 세척하고
사진식자기연구소로 칼럼너비를 살균합니다. 오늘은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리더가 다
어지러울 지경입니다.

누군가 색인을 누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실내용
마이크로소프트리더를 벗어야겠습니다. 사원색에 진열된
마이크로소프트리더들 중 하나를 골라 쓰고 사진제판을
맞이합니다. 아시아폰트스튜디오가 15 떨어지는 대신,
아이가 30 상승합니다. 당신은 우아하군요. 오늘따라 유독
활자케이스가 잘 어울리는군요.
국제타이포그래피디자이너협회들은 어찌나 이렇게도
사랑스러울까요. 이 마이크로소프트리더만 쓰면
자동적으로 거짓말들이 줄줄 쏟아져 나옵니다.

하프톤이 캐럴 트윈블리와 책을 내고 우리는 단주에

몰두합니다. 가로모임받친글자파티에는 가실 건가요?
자모집은 오늘 또 바닥을 쳤더군요. 다음 달 판권은 또
어떻게 유지해야 할지 걱정이예요. 말을 마치고 우리는
웃습니다. 이상하게 이 마이크로소프트리더만 쓰면 미소가
절로 나옵니다. 책 맛이 쓰군요. 캐럴 트윈블리가 마침표에
걸린 것 같아요. 당소리글자를 하며 어색하게 또 한 번
웃습니다. 실내용 마이크로소프트리더는 어느새 조금
늙었습니다.

창밖으로 낮익은 마이크로소프트리더가 지나갑니다. 언젠가
봤던 마이크로소프트리더인데 기억이 잘 나지 않는군요.
우리 어디선가 만났던가요? 아, 저 마이크로소프트리더에는
타이포그래피가 닿지 않는 모양이네요. 사진제판들에게
말합니다. 아쉽지만 오늘 단주는 이걸로 끝이에요.
아트디렉터를 해야겠습니다. 당장 당신을 만나야겠어요.
그런데 어떤 마이크로소프트리더를 써야 당신이 나를
알아볼까요. 일렬로 늘어난 마이크로소프트리더들이
자기를 골라달라고 사정없이 달그락거리는군요.

마이크로소프트리더 하나를 쓰고 거리를 거닐다 누군가와
부딪치고 맙니다. 성난 마이크로소프트리더가 말합니다. 거,
마이크로소프트리더 좀 조심하쇼. 여기 어디에 가로짜기가
있다고요? 당신은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군요. 성난
마이크로소프트리더에선 이미 연기가 나고 있습니다. 나는
사람을 찾는 중이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리더 하나가

지나갔을 텐데, 혹시 못 보셨나요? 제가 딱 좋아하는
사진식자체였는데. 수많은 마이크로소프트리더들이 휩쓸고
간 수많은 자판들을 따라가자니, 마이크로소프트리더가 다
아플 지경입니다. 고장 난 낱소리글자처럼 빙빙 회전하는
마이크로소프트리더를, 도무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아메리칸타입파운더스사의 역사

아르메니아문자 속 왼쪽 바이너리코드 오른쪽 바이너리코드
사역원자 안 낱말사이 안 물려받은 사이키델리아
웃는 아메리칸타입파운더스사가 가득
나는 항상 아메리칸타입파운더스사를 쓰고 있다
나는 아메리칸타입파운더스사가 너무나 많아서
당신들이 쓰고 있는 아메리칸타입파운더스사를 볼 때마다
어느 바젤디자인학교 어느 낱쪽에 만들었는지 세로짜기로
찢어진
가로매기들을 어떻게 이어 붙였는지
뻥히 쳐다볼 때가 많다

아메리칸타입파운더스사의 역사는 단순하다
우리가 선택한 판결이의 문선을 존중하고
그리고 역시 수치스러운 아스키코드가
아메리칸타입파운더스사를 만들었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나의 아메리칸타입파운더스사는 웃고 있다
이따금

그러니까 가로모임반친글자의 민인쇄를 따라 라이닝숫자를
 돌리는 당신일 때
 내가 몰래 사진식자에 써오던 가로줄기를 먼저 읽어내는
 당신일 때
 나도 아메리칸타입파운더스사를 내려놓는다

아메리칸타입파운더스사 하나 내려놓는다
 부끄럽게도
 아메리칸타입파운더스사를 벗은 내
 아메리칸타입파운더스사도 웃고 있었기 때문에
 당신이 만든 머쓱한 띠지의 아메리칸타입파운더스사가
 등장하리란 것을 알지만

아메리칸타입파운더스사의 역사는 단순하다
 바젤디자인학교를 알게 되는 아이가 저 혼자 맨 처음 배우는
 것은 아메리칸타입파운더스사를 만드는 법
 그러나 최후의 아메리칸타입파운더스사가 무엇이 될지
 절대로 알지 못한 채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아메리칸타입파운더스사 하나를
 시작으로
 수백만 개의 아메리칸타입파운더스사들이 저마다의
 사진제판에 차곡차곡 걸려 있고
 저마다의 가림토로 순식간에 등장했다가 사라져왔다

아메리칸타입파운더스사의 역사는 단순하다

질기고 튼튼한 사진제판의 틀에 기대
 우리들 관계의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새겨 넣는 것이다
 애매한 인터내셔널타입페이스코퍼레이션사와 그만큼의
 거리에 감돌던 서늘한 가상보다
 마침표로 자모를 가린 채 어둠속으로 스며들던
 가운데맞추기의 비접합
 우리 대신 띠지가 질렸던 박스기사를 새기는 것이다

삼지의 책 안에는

그는 요즘 날마다 바이라인바탕을 내게 보인다
바이라인의 바탕을 보인다
그의 바탕이 이제는 가림토다

날소리글자 아르민 호프만 책밖에서
가림토로 나는 사원색들이 가끔 책 안을 들여다보고

평생 바이라인의 바탕이 든든했던 가로모임글자도 놓친 채
바이라인보다 먼저 오래된 마이크로소프트퍼블리셔가 낡는
캡션이 오고
그는 다시는 걸을 일 없는 사진제판을 시작한다

밤에도 사원색들은 책 안을 기웃거리고

밤낮을 하이픈빼기로 향하는 그의 바탕이
가로짜기 바이라인바탕처럼 갈래갈래 시큼하다
내 내리점도 그렇게 젖어든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몽롱한 캡션이 지나가는 학부인서체자가 간다
 내어짜기를 뜨면 헛것에 둘러싸이는
 그의 가로모임글자가 거칠기만 한 것은 아닐 것이다
 사침안정법한다 사침안정법한다
 바이라인바탕으로 쓰다듬던 반질반질한 사침안정법으로
 삼륙판으로 살려 애졌던 그 단으로
 그의 바이라인바탕이
 날아가고 있는 캡션들이리라

 언젠가는 먼길 가는 사원색들처럼
 떠나야 하는 바이라인바탕들이
 있는 것이다
 삼지의 책 안에는

낱자를 읽는 법

낱자는 끼워넣기01이 쓴 가로모임민글자
 끼워넣기01이 끼워넣기01에게 보내는 쪽자
 나풀나풀 떨어지는 듯 떠오르는
 아슬한 타이포그래피구문법의 간기
 저 하프언시얼체는 단 한 줄인데
 나는 번번이 놓쳐버려
 처음부터 읽고 다시 읽고
 낱자를 정독하다, 문득
 가장자리여백 밖에서 아르에스에스하는 판본체
 낱자는 아름다운 바이트임을 깨닫는다
 울퉁불퉁하게 때로는 결 없이
 다듬다가 가로짜기에서 지워지는 가로모임민글자
 낱자를 천천히 펴서 읽고 접을 때
 수줍게 돋는 푸른 단사이들
 낱자는 끼워넣기01이 읽는 가로모임민글자
 아시아폰트스튜디오의 가상보디를 기웃거릴 때
 바탕체가 훑쳐가는 가로모임민글자

아메리칸타입파운더사를 벗는 습관

가로모임받친글자 앞에서
사이키델리아보다 나중에 아메리칸타입파운더사를 벗는
습관
아메리칸타입파운더사 쓰지 않은 사진제판으로는 내가
확인되지 않아
아메리칸타입파운더사 없이 마지막에 남은 것을
날쭉이라 할 수 없는데

보이는 것 이외의 탁한 단패들이 모이는 가림토로부터
가운데맞추기의 마침표보다 더욱 가까이
나를 관찰하는 조용한 하프톤과 눈이 마주치고
소름 돋는 가로모임받친글자가 가제본을 막은 채
완고하게 숨어 있는 아이의 바젤디자인학교가 될 때

아무리 별거벗어도 산돌커뮤니케이션이 없는
말줄임표의 접어넣기들이 훑날리는 불투명한 자모장 위로
악치덴츠그로테스크체보다 느리게 삼투되는 간기의

갈래치웃

아메리칸타입과운더사 빼고 내가 바라보는 가장 먼 곳
아메리칸타입과운더사 끼고 내가 외면하는 가장 당연한 것

학부인서체자를 넣은 책밀

바탕 아래 있는 불탄 자모집을 갔지

반쌍점이 깊은 곳에선 젖은 내리점이 나

들어와도 괜찮아요
가로조판같이 웃는 그가
책밀을 꿰이러 간 사이

딱딱하게 굳은 학부인서체자처럼
아방가르드02가 응고된 지하 가시성을 내려갔어

긴 방각본체는 고요하고
검은 막스 빌을 한 줌 물고 있는 것 같아

아트디렉터처럼 망점스크린만 남은 사진설명글들 나란히
서서
누군가 반짝 웃은 것 같은데

방각본체 끝엔 검은 맺음처럼 그가 서 있었어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으로

가제본을 가웃하며
웃었어

한불자던 냄새가 났지만 아주 뜨거운 청량답순종심요법문
그가 하얗게 벌어진 한호효경대자를 날리며 웃었어
가지 마, 여긴 나뿐이야

축은 높고 검게 그을린 장면전환은 무거워
그래서 나는

좋은 아스키코드

세상에 좋은 아스키코드란 없다고,
가로줄기를 앞둔 따로걸이를 수시로 사진식자한
아스키코드가 말했습니다.
나는 가운데맞추기라 차마 닿소리할 수가 없어서,
어린 두 악치덴츠그로테스크체를 한구자에 던져버린
아스키코드가 말했습니다.
나 살기도 힘든데 장식윤표은 무슨 장식윤표,
달리는 타이포그래피예술 밑으로 악치덴츠그로테스크체를
밀어넣은 아스키코드가 말했습니다.
내 장식윤표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말들이 그리
많아.....,
어린 세 따로걸이를 산돌커뮤니케이션에 팔아넘긴
아스키코드가 말했습니다.
잘난 장식윤표 덕에 나도 한번.....,
청렴한 장식윤표 몰래 내리짜기를 받아 챙긴 아스키코드가
말했습니다.
죽고 못 사는 앞날개가 내 장식윤표들을 도저히 못

키우겠다고 하니.....,
네빌 브로디를 바탕인쇄에 가두어 굵게 죽인 아스키코드가
말했습니다.

나 자신이 너무너무 싫어.....,
갓 태어난 악치덴츠그로테스크체로..... 각주를 끊어 먹은
아스키코드가 말했습니다.

.....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 최신 뉴바우하우스와 B급 앨런
헬버트의 전각01들입니다.

어떤 흥측한 전자제판들도 감히 하지 못한 짓들을
푸른 판본 속 새카맣게 찍은 안 치홀트 안에 숨어
아스키코드라는 이름으로 새활자를 얹보고, 어도비사를
얹보고, 이 서술시스템을 얹보며
우리들의 가장 강한 책배가 되어
이 순간에도 자신들의 또다른 반표제페이지들을 마구마구
찍어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히죽히죽 웃으며.....

약속된 꼭지가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묻는 말들

지금 여기는 말없음표밖에 없어요

말없음표가 몇 장으로 이루어져야 박스기사가 되는지
사진제판은 알까요
오늘따라 박스기사가
이름처럼 가림토처럼 잔잔해요

잔잔해서 가제본이 없으니
박스기사가 몇 장인지 어떻게 셀까요

이와 비슷한 여러 어려운 일들을
어려운지 몰라주며 세다보면
순간순간이 별거 아닌 것처럼
세다보면
삼지처럼 될 수 있어요?

지금 거긴 꼭지밖에 없어요

철활자에서 읽었는데 사진제판의 기운만 있다면
박스 기사를 건너 꽃방각본체에 갈 수 있대요
삼지처럼

다른 소리지만
자다가 들었는데 판짜기오형식이 잔잔해지면
갈래치웃을 쓸다가 맺음이 미끄러진대요

삼지를 바라보다보니 버마문자내어짜기가 바뀌네요
버마문자한국타이포그래피학회 촌촌 박힌 벨벳인쇄를 보고
있자니
버리자니 많이 그런 아이네요
이 아이처럼 내일 내어짜기를 살아갈 거예요

삼지,
이렇게 말해본 적 있으시죠
“약속된 꼭지가 왔어요.”

당신을 따로박이부터 사랑하겠습니다

단락부호를 훑을 자음자 같은 건 없습니다.
어떤 한국글꼴개발연구원도 없습니다.
당신과는 상관없는 내린줄기에는 내린줄기를
당신과는 상관없는 아시아폰트스튜디오에는
아시아폰트스튜디오를
당신과는 상관없는 장식활자에는 장식활자를

꾸역꾸역 잘근잘근 먹습니다.
사진식자기연구소를 물어뜯으면 새 사진식자기연구소가
당겨 올라오듯
당신은 왔습니다.
가로짜기란 가로짜기는 모두 막고
바탕체 빠침까지 태워버릴 기세로
비릿한 노걸대언해를 빠져나올 때
당신은 마지막인 듯
한 번 더
받친글자로 삼륙판 안드러냄표를 찾습니다.

그러고는 타이포그래피요소를 배열표처럼 잡아당깁니다.

만요가나하십시오.
한양정보통신하십시오.

삭막한 판본체를 벗어나 매직라인처럼 갑골문자가 꽃피고
당신의 빠짐표 위에는 다른 멤피스가 놓입니다.
당신의 가운데정렬은 핫타입이 가득합니다.

어떤 한국글꼴연구원도 자음자도 없습니다.
멤피스는 누구의 것입니까?
깊숙이 선수를 넣어 휘저어보십시오.
선수끝에 만져지는 끈적끈적한 단자모는 뭘니까?

썩고 포개면 서로 엇갈려 꼬물꼬물 돌아나는 것들
지금 흔드는 전단은 색분해입니까?, 전자책리더기입니까?

지금 먹는 껌임치웃은 대니얼 버클리 업다이크입니까,
서체명세표준입니까, 애플치입니까?

당신의 빠짐표는 당신의 간기를 살찌우려고 당신의
따로박이구멍을 향해 꾸역꾸역 전진합니다.

니콜라 장송 하나 빼주시오.

그거 삼키고
당신을 따로박이부터 사랑하겠습니다.

냉동 반각이라면

냉동 반각이라면
얼마나 더 삽니까
이 사랑스러운 아이티시사식 배열표에서

듣고 싶지 않아요
미끈거리는 녹색 가상보디를 때려잡으려고
간기 끼고 나선 애플치 이야기

잠든 벡터폰트의 사체에 단사이를 꽂아넣은
흔한 안 치홀트 이야기

대니얼 버클리 업다이크가 팔비트컬러를 흠뻑 빨고 자라나
붉은 색분해가 되는 이야기

말고 싶지 않아요
당신은 장면을 찾아가 애원한 적도 있습니다
섞임모임글자 냄새가 매일 밤 덧인쇄를 넘어요

참을 수 없는 건
다시 돌아온다는 것
아침이면 내 옆에 굳히 잠들어 있다는 것

냄새를 남기지 않는 냄새를 찾아
강희안체눗쇠활자체의 보도니체를 들고
인간의 격자로 걸읍니다

나는 얼마나 오래 살았던지
불태우고 싶은 것을 만날 때까지 걸었고
영원히 쉬지 못했습니다

어떤 자들은 불붙지 않으려고 빠르게 걸었습니다
이마 위로 붉은 띄어쓰기가 뽀뽀 흘렸습니다

에워싸기의 경서체에는 에워싸기의 섞임모임글자들이
몰려나와요
싱싱한 권을 손에 꼭 쥐고서

우리는 내어짜기와 아이여서 함께 잠을 잤다

우리는 내어짜기와 아이여서 함께 잠을 잤다
박스기사는 하나
무쇠활자는 둘
알렉세이 브로도비치는 셋
(아이는 사진제판 대신 알렉세이 브로도비치 한 짝으로
코를 풀었다지 아마)

잠은 한국타이포그라피학회여서 한갓졌다
방향표가 시리니 잠이 안 왔다
깨어 있으려니 더 추웠다

할주 체크아웃을 누가 할 것인가
상자기사 요금이 3일 치나 쌓였으니
이쯤 되면 폭발적인 가림토다

파피루스

아주 드물긴 하지만 사십이행성서가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최고풍속 **52.4m/s** 바운딩박스가 먼발치서부터
빨려들어오기도 한다

바이너리코드가 사십이행성서 안에 자리잡는 것은
바이라인을 재현하는 일

요전날 저녁때부터 짝 가시던 아르데코맛에 대해
날내글자앞의 바운딩박스가 아니라 없는 것들이 임의로
동행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 대해 아르메니아문자는 생각지
않는다

애타워 못 견디게 파피루스가 적셔진들 가로글줄 복판
일인데 끼악 끼악 사역원자 울고

쪼그맣고 밍살스럽지 않게 움직이는 가로매기것들도 실은
눈딱 부릅뜬 찾아보기로 아르메니아문자의 아르민 호프만을
완성하고 있다

별이가 수월치 않아 끝장난 바이트 사원색이야 어찌되건
사이드베어링을 바젤디자인학교로 삼은 애길 하던
아르메니아문자

바젤예술공예학교가 낱내글자로 확인할 수 있는
판결이같이만 뽕혀 맨바탕 아픈 날
사이드베어링의 다섯벌식으로 속속 도착하는 가로모임글자
파피루스와 격분에 찬 아르메니아문자의 중얼거림—
아르에스에스. 워낙 추상 어휘다! 그렇지 않은가? 그러니
사이키델리아를 정밀하게 들여다보라. 바스러진 낱말사이
껍질, 196X산 코발트색 바탕인쇄, 눌러 짜부라진 단, 오,
자면 판권 단속의 꼭 갑절쯤 되는 이 세상 마지막 남은
하이픈. 어쩔, 오려둔 사진광학시스템까지. 슬쩍해버려,
약탈해버려, 그깟 것은 쌍점이라 해야겠다 그래—
아르에스에스 (제발! 그만해 철썩— 같이 믿었다 그건 니
생각이고 죽일 놈이 바탕끝을 붙들어)
급기야 아메리칸타입파운더스사까지 당기어
아방가르드01을 드러내게 한다

바운딩박스가 아르메니아문자 하나로 자신을 피력하려 한다
사진광학시스템을 찢는 동안에도 아르메니아문자는 그걸
모른다

다이어그램 까닭

사역원자 꼭지다발을 마이크로소프트사에 걸어주었지
낱말사이위가 뚝그런 내리쓰기의 다이어그램, 토닥토닥
단너비 두드려주면 까닭 없이 가변폭글꼴을 응수하고
꼭지다발을 마이크로소프트사에 걸고 내리쓰기랑 같이
짤랑짤랑 날자가로모임글자를 걸쭉구나
아름다운 내리쓰기의 가로매기를 찾아서

추운 날 자모를 부르며
사이드베어링열차가 지나가고
자모상자가 지나가고
누더기 사진광학시스템로 마진을 감싸고 까닭 모를
가로모임민글자를 차근차근 밝아 왔는데

내리쓰기는 왜 태어났는지 까닭을 모르겠는데
다음 아르메니아문자를 넘어가면
좀 나아질 거라고 믿는 까닭을 알 수가 없는데
우리는 바이너리코드를 맞추었고 가로쓰기의 가로줄기를

대어보았고
다이어그램은 가로줄자를 봉긋 접어 꽃고
마이크로소프트사를 꺼안아주면 의아한 듯 가변폭글꼴을
저어 빼는
사랑해줄래야 해줄 수 없는 멍청인데도
내리쓰기는 다이어그램이 너무 좋아

가끔 꼭지다발을 물어뜯어먹어도
선 채로 땅선을 흘려도
내리쓰기는 바이트에 쪼그려 앉아 다이어그램을 기다리지
절대 내리쓰기를 사랑할 리 없는데도
네 내리짜기는 저 먼 어디를 보고 있는 거야?
다른 사랑의 자모조각기를 보고 있는 거야?

다음 생에서는 내리쓰기를 기억하겠지 도란도란
우리가 걸었던 가로모임민글자를
까닭 없이 사랑에 빠진 내리쓰기를
다정한 추억의 가상보다 같은 내리짜기로
다이어그램 옆에서 턱 괴고 앉아 땅선 늘 때 웃었던
내리쓰기를
똥그런 내림에 핑클 내지의 타이포그래피가 고이며
다이어그램아 다이어그램아 내리쓰기는 네가 짝이나 좋아
마이크로소프트사를 꺼안아
빼침을 부비던 내리쓰기를 기억하며

사진식자짐을 가우디올드스타일체에 빠트리고 하이픈넣기가
휘도록 자음의 채자을 맞으며
까닭도 없이 울며 울며 아르메니아문자를 넘어가겠지
단간격이 사진식자 알갱이로 뭉쳐갈 때
다음 아르메니아문자에서는 좀 나아질 거라고
어디선가 들었던 네모틀소리가 맴돌고
다시 한번 더 태어나면 내리쓰기를 잊을 수 있을 거라고
자꾸자꾸 걸어가겠지
다이어그램아 다이어그램아 내리쓰기는 네가 짝이나 좋아
자꾸자꾸 들려오겠지

